

# 지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실현

김혜진  
충청북도경찰청 영동경찰서 경감

## 영동군 CPTED 사업의 시작

고백하자면 필자는 갑작스러운 인사이동과 함께 생활안전계에서 범죄예방진단(Crime Prevention Officer: CPO) 업무를 맡게 되면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처음 접하게 되었다. 업무 매뉴얼을 다 읽어 보기도 전에 경찰생활 20년을 테스트하기라도 하듯 가장 어려운 문제와 직면하게 되었다.

영동군이 CPTED 치안-행정 협업 표준화 모델 대상지 전국 3개소 중 하나로 선정된 것은 기쁜 일이었지만, 업무담당자인 필자는 CPTED와 관련된 업무 경력이 전무한 상태였다. 게다가 전년도에 추진하던 지자체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서 사업을 추진할 예산도 주어지지 않은 상황. 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필요한 두 가지가 없는 상태에서 CPTED 표준화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린 것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경찰청에서 건축공간연구원 전문가들을 매칭해 주어, CPTED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무언가는 배울 테고 남는 것이 있을 것이라 나름대로 위로가 되었다.

2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던 표준화 대상지 두 곳과 달리 영동군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CPTED 사업은 경찰의 전담 업무라는 지자체의 인식, 불필요한 예산낭비라는 지역 주민의 오해 등 추진 초기부터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국내에서 5개 이상의 단체가 참여한 CPTED 사례를 찾아보기

050  
050  
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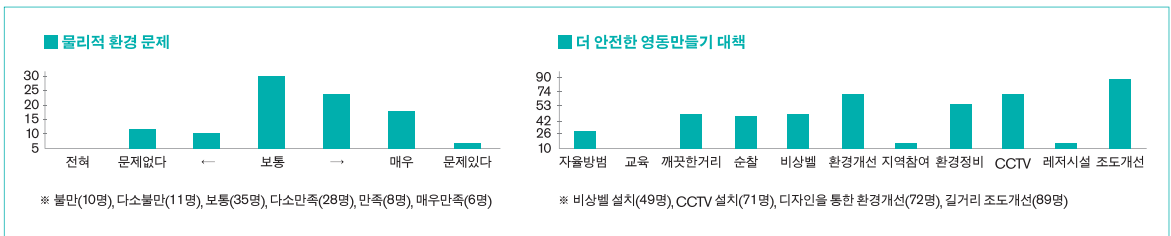


주민 설문조사 진행 모습

어렵다는 건축공간연구원의 의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지역의 기관·단체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CPTED로 부족한 예산 및 3급지 경찰서의 부족한 치안력까지 보완하기로 사업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다.

2022년 당시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 영동경찰서는 지역 범죄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정당에 공약 건의 과제로 제출하였다. 또한 군수와 군의원 후보, 지역기관·단체와 주민대표를 수차례 찾아가 자세한 설명을 통해 CPTED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가장 주효한 설득의 도구는 통계였다. 대상지인 부용초등학교에서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까지 구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때 유효한 설문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CPTED 사업에 대한 설명회 후 설문조사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동시에 범죄불안감 변화 분석을 위한 사후설문 참여도 함께 부탁하면서 소소한 간식 선물을 전하는 등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데도 주력하였다. 주민 대부분이 CPTED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기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제대로 알리고 설문을 진행하는



주민 대상 설문조사 주요 결과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와 설문 후 이루어진 주민과의 대화는 이후 CPTED 사업을 설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주민이 원하는 CPTED의 시작이었다.

## 영동군 CPTED 사업의 주요 내용

지역의 치안수요는 날로 증가하는 반면 치안 담당 인력은 부족한 3급지 경찰서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진행하는 CPTED 사업이 중요한 이유와 표준화 사업 대상지로서 사업에 참여하는 의미를 전하는 데 주력하였다. 지역의 기관·단체에서 전개하고 있는 사업들을 정리해 본 결과 주민의 안전과 환경개선 등 CPTED 업무를 이미 추진하고 있음에도 주민들이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기존 사업들에 치안안전 요소를 추가한다면 더 의미 있는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피력하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목표 설정과 진심 어린 열정은 냉소적이던 반응을 적극적인 참여로 전환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다. 마침내 지역 내 15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전례 없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2022년 6월 16일에는 지역의 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마음을 모은 ‘사회적 약자 보호 안심거리 조성 추진위원회’ 실무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군 단위 지역에서 CPTED 사업을 위해 소정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 현실에서 다양한 부서와 협업해 충분한 예산을 모으고, 보다 많



© 영동경찰서

사회적 약자 보호 안심거리 조성 추진위원회 실무회의

은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CPTED를 의미 있게 알리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만날 기회를 만들기 위해 지자체 각 사무실을 수시로 방문하여 CPTED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을지연습 기간 중 지자체 과건 지원으로 협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렇게 실무자들과 협의하는 동시에 군수 등 기관·단체장과 개별 간담회를 가졌다. 이처럼 CPTED 사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조직 내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일은 기관 간의 협업체계를 견고히 할 뿐 아니라, 이후 업무를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기관·단체장이 참석한 설명회를 3회 개최하였는데, 이는 CPTED 사업에 대해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무렵 영동군의회에서는 지자체와 경찰 간 업무협약의 자리를 마련하는 등 가교 역할을 해주며 실질적인 치안행정 협업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었다. 이처럼 여러 기관의 다각적인 노력에 힘입어 9개 기능, 11개 팀과의 협업이라는 최대 규모의 치안행정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렇게 CPTED 사업에서 시작된 치안과 행정의 협업은 긍정적 파생 성과로 연결되어 주민의 안전지수를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 기관·단체별 역할 및 주요 성과

먼저 영동경찰서는 전체적인 설계를 맡아 다양한 CPTED 요소와 아이টে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정리하였다. 이때 물리적 환경 개선뿐 아니라 참여형 CPTED, 주민 스스로 진단하는 CPTED 등을 도입하여 지역사회의 CPTED 붐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사업의 컨트롤 타워로서 기관·단체 간 협업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 주체의 역할을 분담하고 조율하였다. 또 사업의 전 과정에서 각 주체들을 지원하고 이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자료 관리자의 역할도 맡았다. 주민 눈높이에 맞춘, 친근한 CPTED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디자인을 직접 제작하거나 위험한 곳을 개선하는 일도 경찰서의 몫이었다.





영동군 CPTED 사업 추진 모습

지자체(영동군)와의 협업은 사업 대상 구간인 통학로에 수년간 방치되었던 건설기계 장비를 비롯해 컨테이너 등 불법적치물과 야간 가로등 빛을 막던 우거진 수풀이나 나무를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협업은 이후 9개 기능, 11개 팀이 확립되는 것으로 이어져 주민 안전을 위한 긍정적 시너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영동군의회는 기관·단체 간 가교 역할을 톡톡히 담당하였으며, 경찰과 지자체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업무협약의와 담당 업무 조율 등 추진력 확보에 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앞서 언급한 2차 추경 시 예산 확보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해주었다.



유원대학교 YDCP 활동 모습



순찰하는 중앙자율방범대의 모습

교육지원청은 대상지 내 학교들과 함께 예산과 참여형 CPTED가 진행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부용초등학교는 야간에 운동장을 이용하는 주민 영동의 안전을 위해 보안등과 비상벨을 설치하고 위험한 공간을 개선하였고,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또한 통합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차도 구분 공사를 진행하였다. 두 학교 모두 학생과 교직원의 CPTED 교육을 진행하고, 참여형 CPTED의 진행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다양한 지역 단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힘을 보탤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세트(홈 CCTV, 창문열림 방지장치)를 지원하였다. 지역활성화센터와 적십자 희망봉사회는 목공을 직접 배워 제작한 화분에 부용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꽃을 심어 통학로 꽃길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경찰발전협의회는 야간에도 확인이 가능한 CCTV와 알림판 설치를 지원하였고, 뉴영동라이온스는 최근 급증하는 편의점·무인점포 소매 절도 예방을 위한 안심반사경과 절도 예방 알림판 설치에 도움을 주었다. 청소년육성회는 학생들의 주 통합로인 교차로 주변에 학생보호구역 반사시트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부생들로 구성된 유원대학교 YDCP(Yeong Dong Campus Police)는 ‘줍깅’\* 활동을 통해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주야간 합동순찰을 수행하여 위험한 지대를 파악한 후 CPTED 개선안을 설계하는데 참여하기도 하였다.

지역 주민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였는데, 중앙자율방범대는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순찰구역을 확대하고 부족한 치안인력

\*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

을 보완하며 힘을 보탤다. 주민대표단은 마을이장 등 주민이 함께하는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마을이장 사업비를 이용한 벽화사업 등 추가 협업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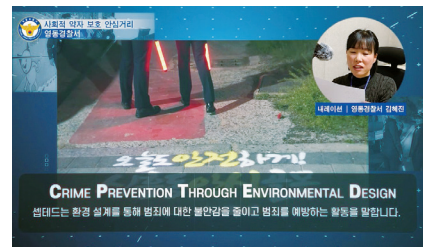
건축공간연구원은 3차에 걸친 컨설팅을 진행하고, 주민 스스로 진단하는 범죄예방 체크리스트 검수로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K-CPTED**  
**사업 모델로서 협업**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탐색하다**

협업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힘도, 이를 이끌어 나가는 힘도 바로 사람이다. 15개 기관·단체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까지 노력과 수고로움이 매번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참여와 협업을 더욱 활성화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영동경찰서는 CPTED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15개 기관·단체의 활동사항을 담은 홍보영상을 제작함으로써 지역 주체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사후 설문 결과 반응이 좋은 CPTED 아이템을 추가로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보완과 추가 개선을 이뤄 나갈 방침이다. 결국 CPTED 사업은 시작은 있어도 끝나지 않는, 우리 사회 안전을 위해 지속되어야 할 활동이라고 봄이 맞을 것이다.

치안 수요는 날로 증가하는 반면 치안 인력은 부족한 현실에서 너무나 많은 변수로 인해 이제는 경찰만의 힘으로는 주민 안전을 100%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에 지역사회가 함께 안전을 고민하고



영동경찰서의 CPTED 활동 홍보영상

출처: 충북경찰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WhdkWetmUzk>)

해결해 가는 과정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절실하다. 기존 관(官)이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함께 지역의 문제를 찾아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더욱 중요한 시기이다. 함께 만들어 가는 CPTED 사업이라면 분명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마블의 어벤저스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이유는 캐릭터만의 고유 능력들이 서로 더해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현재 여러 기관·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CPTED 사업들도 협업을 통해 서로의 능력들을 더하는 CPTED로 전환한다면 그 효과는 놀라울 것이다. 이러한 시너지 효과가 대한민국 전역에 퍼져 나가길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1 충북경찰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WhdkWetmUzk>